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

강 혜 원 · 고 애 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생활학과

**Effect of Design Modification and Color Scheme on Impression
Formation of Traditional Korean Women's Clothing**

Hewon Kahng, Ae Ran Koh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1. 3. 2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sign modification, decoration and color scheme of traditional Korean women's clothing on impression formation by 2 age groups of women.

The instruments developed for the study were 2 sets of stimuli and a response scale. Stimuli I (design stimuli) consisted of 6 line drawings of female figures in Korean clothing and modified Korean style clothing, whereas stimuli II (color stimuli) consisted of 6 colored drawings of female figures in different color schemes. The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 of 14 bipolar adjectives were used for the response scales. 144 female college students and 144 middle-aged women subjec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6 drawings from each set of stimuli. The data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ANOVA and t-test.

1) There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dimensions of design and color scheme, respectively. The first factor was interpreted as Evaluation/Prestige both in design (stimuli I) and color scheme (stimuli II), the second factor was Modernity for stimuli I, and the third factor for stimuli I was Practicality. On the other hand, the Luxuriousness/Individuality was factor 2 and Modernity was factor 3 for stimuli II.

2) Modification had the largest effect on impressions regarding design and decorated designs had a partial effect on the impression of Modernity and Practicality. The female figures in modified Korean style clothing were perceived as more prestigious, modern and practical than those in traditional Korean clothing.

3) Color schemes had little effect on impressions, while perceiver's age had a larger effect.

Middle-aged women formed more positive impressions toward Korean clothing of various color schemes than female college students.

I. 서 론

의복은 개인간의 사회적인 만남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서 낯선 사람에 대한 첫인상 형성상황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우리의 한복은 현대인의 일상의복으로는 멀어져 왔으나, 근래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 새로운 시각에서의 재조명 움직임이 일어나므로써, 한복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졌다. 이와 아울러 한복의 선이 응용된 디자인의 개발이 서울올림픽 이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은 전통의복의 특징인 자연과의 조화, 청렴(purity)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¹⁾. 이러한 시점에서 현사회에서의 한복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는 의미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는 한복과 관련된 몇편의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연구²⁾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한복과 양복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복의 선을 응용한 디자인 및 한복에서의 배색에 초점을 두어, 현대 생활에서의 한복이 전달하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복에서의 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및 한복응용 정도와 아울러 한복 배색에 대한 관점을 인상형성 연구로 접근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복의 의미를 재검토하여 의류학 분야에서의 이론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다. 또한 실용면에서는 앞으로의 한복응용 스타일의 생산 및 착용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므로써 현대생활에서의 전통의복의 활용범위를 넓히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복 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및 관찰자의 연령이 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 2) 한복 차림에서의 배색과 관찰자의 연령이 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 3) 한복과 한복응용 스타일의 디자인 및 한복의 배색에 나타나는 의복착용자의 연령, 신분, 착용목적 추측과 인상내용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는 대인지각 이론 및 인상형성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의복연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 대인지각 이론

대인지각이 지니는 특성에 있어, 지각자는 타인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며 타인과 자신이 유사하다고 가정함으로써 타인의 내적특성을 추론하며 직접 알 수 없는 속성은 자신의 관찰을 통해서 추측한다. 또한 지각자와 지각대상자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있다³⁾.

대인지각 이론 중 본 논문에서 관계되는 인상형성 과정에 대한 이론, 내현성격이론 체계 및 대인지각 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상형성과정 이론

형태주의적 접근: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Asch⁴⁾는 인상(impression)이란 지각 대상자가 지닌 특질·특성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전체형태(Gestalt)라고 가정하였다. 즉, 인상형성시 개인은 각각의 정보들을 조직해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형태로 지각하며, 자극특성들로부터 인상형성의 인지과정을 거쳐 다른 특성에 대한 반응추론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⁵⁾.

행동주의적 접근: 이 이론에서는 인상형성과정에서 타인에게 주어지는 낱개의 특성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일정한 척도치가 평균모형 또는 누가모형에 의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최종인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⁶⁾.

이상의 두 이론은 이론상의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형태주의적 접근에서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며, 반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적 차원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내현성격이론 체계: Asch의 영향에 의한 연구방향의 하나로서, 이는 성격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신념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간내부의 특성들간에는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각자는 이러한 상호연관성

을 자신의 또는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일반화시킴으로서 행동당시 직접 나타나지 않은 특성들까지도 추리한다. 내현성격이론 체계는 특성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인상, 감정, 사회경제적 배경, 의복스타일과 같은 개인간의 언어적·비언어적 관계의 여러측면에 까지 확장된다⁷⁾.

Schneider등⁸⁾은 대인지각 과정을 6단계의 연속적 과정으로 보았으며, 의복과 외모는 대인지각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며 지각자의 내현성격 이론체계에 연관됨으로써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⁸⁾.

2. 의복과 인상형성

의복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바 오래이며, 최근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실험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복의 유형과 색상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의복 유형의 영향: 4가지 유형의 여자의복에 대한 인상을 다룬 Sweat과 Zentner⁹⁾ 및 Paek¹⁰⁾의 연구에 따르면 각기 다른 유형의 의복착용자는 그 의복의 이미지에 관련된 인상을 받았다. 또한 이주현¹¹⁾의 연구에서 suit 착용자는 가장 성숙하고 화려한 사람으로, dress 착용자는 가장 능력없고 비활동적이며 매력없는 사람으로, blouse·pants 착용자는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어리고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내에서는 Damhorst의 연구¹²⁾에 따르면 정장차림은 약식복장 착용자보다 더 많은 관리적 역할과 높은 지위를 나타내며 활동적·권위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강혜원등²⁾의 학교·직장·모호한 상황에서의 의복유형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의복유형은 평가와 품위요인에 두드러진 영향을 나타내어 한복착용자가 가장 품위있는 것으로 지각되고 양복착용자가 좀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복차림에 대해 전통적 이미지외에 한복이 착용되는 목적·배경과 관련지어 젊은 사람에게 운동권과 개성적인 이미지의 도식이 나타났다.

의복 색상의 영향: 의복 디자인 요소중 의복색상은 대인지각에 있어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서 지각되며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난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작용, 색의 상징성 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

해서 인상형성시 영향을 미친다¹³⁾.

한편 배색, 즉 각기 다른 2가지색 이상의 색체결합에 대한 미적 감각은 색채조화로써 설명된다. 색채조화 방법은 유사색조화(related color harmony)와 대비색조화(contrasting color harmony)로 크게 나누어지며, 유사색 조화 중 인접색상 조화는 색상차이가 적어 통일감과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한편 대비색 조화 중 보색조화는 색상 차이가 커서 매우 강렬한 느낌을 주며 두가지 색 중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전체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하게 된다¹⁴⁾.

Mahannah¹⁵⁾는 의복색상과 착용자 머리색의 Yin-Yang 성격특성에 흑발이 조합되었을때 착용자는 가장 남성적이며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Yener¹⁶⁾는 관찰자의 의복색상 선호가 착용자에 대한 매력평가 및 성격 특성에 관련된 원인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특정색에서의 명도 또는 채도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 짙은 색의 의복은 관리적 지원여성의 능력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¹⁷⁾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기숙¹⁸⁾은 현대전통 한복의 기본적 구조를 제공한 조선복식의 색조화 방법상의 특징은 강렬한 보색대비보다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대비가 대부분이며 명도가 낮은 색을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였으며, 상하의의 색조화 외에도 깃·동정·웃고름·결마기·끝동 등에 다른 색을 소화시킴으로서 의복 형태를 부각시켰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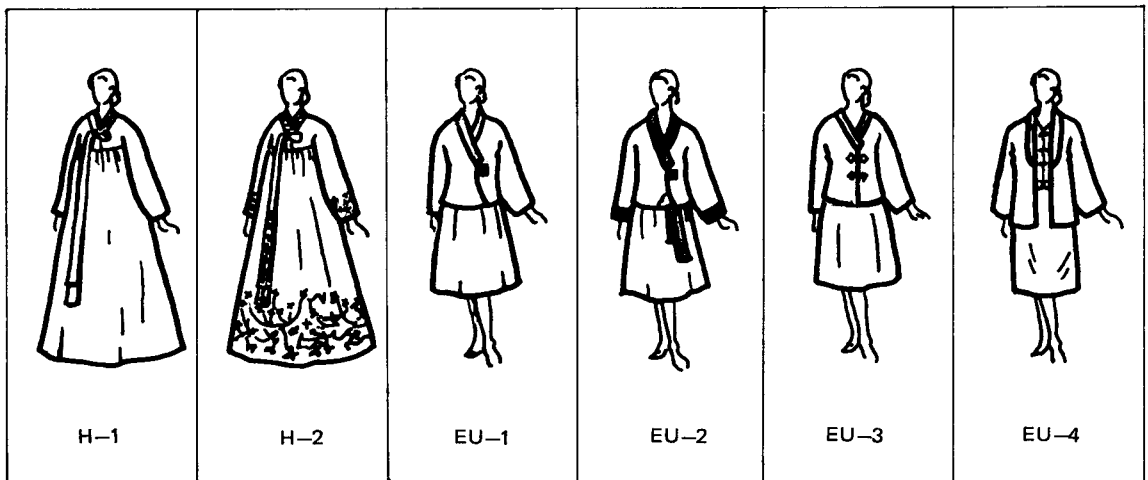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두 범주의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분척도와 선다형 및 자유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실제 자극물에 제시된 의복스타일 및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1) 자극물 I: 한복 디자인의 전통성 및 장식성

<그림 1>과 같이 한복 디자인의 전통성과 장식성의 자극물은 한복 2개 및 한복응용 스타일 4개의 총 6개의 흑백 선그림의 사진(6×4 in)으로 구성되었다. 즉, 디자인

<표 1> 자극물의 변인조작 내용

자극물	조작 변인	조 작 내 용	비 고
자극물 I: 디자인	디자인의 전통성	한복 한복응용스타일	2×2 요인설계
	디자인의 장식성	장식없음(無) 장식있음(有)	
	디자인의 한복응용도	한복과 양장이 반반 응용됨 양장에 가까움	부가적 관심 규명을 위해 포함됨
자극물 II: 한복배색	현대적 배색: 색조화 방법	유사색 조화 보색 조화 <u>조작방법:</u> 1) 저고리색 통제 연두저고리/청록치마(유사색조화) 연두저고리/꽃분홍치마(보색조화) 2) 치마색 통제 분홍저고리/보라색치마(유사색조화) 노랑저고리/보라색치마(보색조화)	2가지 개별설계: 2수준의 1요인 설계
	전통적 배색: 페백시의복	페백시 시어머니: 옥색저고리/남치마, 남끝동, 자주색 고름 페백시 신부: 연두저고리/다홍치마, 다홍색 반회장	부가적 관심 규명을 위해 포함됨



H-1: 장식없는 전통한복
 H-2: 장식있는 전통한복
 EU-1: 장식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EU-2: 장식있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EU-3: 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응용된 스타일
 EU-4: 양장에 가까운 한복응용스타일

EU-1 :

(그림 1) 본 연구의 자극물 I

의 전통성 유(有)·무(無)와 장식성 유·무가 조합된 4가지 디자인과 그외에 한복응용 스타일에서 양장에 가까운 스타일 및 양장·한복이 같은 정도로 복합된 스타일 1개씩이 첨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응용 스타일의 형태는 서울시내 백화점 5곳의 양장전문 브랜드 및 한복 전문점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당시의 보편적이면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스타일을 선택하였다.

2) 자극물 II: 한복의 배색

한복의 배색에 대한 인상의 자극물은 자극물 I(그림 1)의 한복기본형(H-1)에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한 전통적 및 현대적 배색 그림의 color 사진(6×4 in) 총 6개로 구성되었다. 현대적 배색은 저고리색을 통제하여 치마색과의 유사색 및 보색조화와, 치마색을 통제하여 저고리색과의 유사색 및 보색조화의 4가지였다. 전통적 배색은 폐백시의 옷 즉, 전통적 의미를 지니면서 근래에도 사용되는 배색의 한복 2가지를 더 포함시켰다.

이러한 한복배색을 포함시킨 것은 시장 조사를 통해 1) 근래의 한복 배색 경향이 상·하의 異色배합이며, 2) 전통적 색상에서 벗어난 다양성과 유행변화를 나타내며 3)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면적 비율 차이가 크므로 색조화 방법에 따른 인상형성에서 색상면적의 영향이 강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범주의 자극물은 1990년 7월~8월에 수차에 걸친 시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개발되었다.

자극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실험(여대생 45명, 중년여성 24명에 실시)에서 한복응용 스타일의 디자인에 대한 수정 및 자극물의 착용자 자세·얼굴·머리모습 등을 수정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인상측정 척도

의미미분척도: 어느 여성의 외출할 때의 모습이라고 설명한 자극물에 대하여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할 척도는 7점척도의 총 16개의 단어쌍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²⁾에서 개발된 의미미분척도로부터 전문가집단의 판단을 거쳐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관계된 품위·전통성·조화 평가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14개 단어쌍을 1차 선정하였다. 척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 자극물에 대한 판별력이 부족한 1문항을 수정하였고 자극물 I 또는 자극물 II의 한가지에만 적용되는 3문항의 단어쌍을 첨가 또는 내용수정 하였다. 따라서 최종척도는 두가지 범주의 자극물에 공통되게 사용된 13문항과

자극물 I(디자인)에만 사용된 2문항(화려한-수수한, 실용적인-비실용적인), 자극물 II(한복배색)에만 사용된 1문항(화사한-어두운)으로 구성되었다.

선다형 및 자유응답문항: 자극물속의 착용자에 관련된 객관적인 의미미분척도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4문항이었다. 내용은 자극물속의 착용자에 대한 신분, 착용목적, 착용한 옷에 적합한 연령층의 질문 및 자유응답문항(착용자를 보았을 때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외에 피험자의 연령·교육·경제수준·직업에 관한 문항들이 첨가되었다.

2. 표집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여대생과 중년여성이며 표집대상

<표 2> 피험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경제수준의 분포경향

여대생 : n=144, 중년여성 : n=144

		여대생		중년여성		
연령	만 20~24세	144명	100%	57명	39.6%	
	40~44			28	19.4	
	45~49			29	20.2	
	50~54			30	20.8	
	55~59					
교육수준	국민학교 졸업			5	3.5	
	중학교 졸업			6	4.2	
	고등학교 졸업			32	22.2	
	전문대학 졸업			4	2.8	
	대학교 재학 및 졸업	144	100	62	43.1	
	대학원 졸업			35	24.3	
직업	대학생	144	100			
	주부			86	59.8	
	전문직			29	20.1	
	기타 직장인			29	20.1	
경제수준	상	중	3	2.1	4	2.8
		하	7	4.9	13	9.0
	중	상	43	29.9	52	36.1
		중	69	47.9	60	41.7
	하	11	7.6	12	8.3	
하	상	1	0.7	1	0.7	
	중	1	0.7	1	0.7	
무응답		9	6.2	1	0.7	

은 서울과 서울근교대학의 여대생과 서울시 거주 중년층 (40·50대)여성 각 144명 총 288명 이었다. 표집대상의 연령·교육·경제수준·직업의 분포 경향은 <표 2>와 같다.

자료수집은 1990년 11월~12월에 여대생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중년여성은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각 피험자는 자극물 I 과 자극물 II 중에서 자기 1장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합시킨 2장의 그림사진이 부

착된 설문지에 동시에 응답하였다. 설문지의 자극물 배치 순서는 자극물 II(색배합)가 앞에 오도록 하였다. 각 자극물에 대한 관찰자 수는 각 연령집단별로 24명씩 배정하였다.

3. 자료 분석

인상요인의 추출을 위한 요인분석(주성분모형 및 Varimax 회전), 변량분석, 일원변량 분석 및 SNK검정,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포를 검토하였다.

<표 3> 연구문제 1(디자인) 및 연구문제 2(색배합)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a

n=288

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현 대 성		요인 III: 실 용 성	
	형용사쌍	요인 부하치	형용사쌍	요인 부하치	형용사쌍	요인 부하치
	보기싫은 - 보기좋은	.830	전통적인 - 현대적인	.842	비실용적인 - 실용적인	.805
	품위있는 - 품위없는	-.775	보수적인 - 진보적인	.835	화려한 - 수수한	.695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못한	-.760	소심한 - 대담한	.777	검소한 - 사치스러운	-.659
	어색한 - 자연스러운	.735	평범한 - 개성적인	.774		
	촌스러운 - 세련된	.733				
	멋있는 - 멋없는	-.697				
	조화된 - 조화되지 않은	-.655				
	경박한 - 신중한	.619				
	총변량.....	65.7%				
	설명력: 총변량에 대한 비율	31.8%	24.2%	9.7%
	고유근	4.77	3.62	1.45
한 복 의 배 색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사치성·개성		요인 III: 현 대 성	
	형용사쌍	요인 부하치	형용사쌍	요인 부하치	형용사쌍	요인 부하치
	보기싫은 - 보기좋은	.831	검소한 - 사치스러운	.789	전통적인 - 현대적인	.747
	어색한 - 자연스러운	.789	평범한 - 개성적인	.787	보수적인 - 진보적인	.679
	촌스러운 - 세련된	.788	소심한 - 대담한	.709		
	멋있는 - 멋없는	-.741	어두운 - 화사한	.471		
	지성적인 - 지성적이지 못한	-.736				
	품위있는 - 품위없는	-.671				
	조화된 - 조화되지 않은	-.646				
	경박한 - 신중한	.622				
	총변량.....	59.6%				
	설명력: 총변량에 대한 비율	31.9%	19.8%	7.9%
	고유근.....	4.46	2.78	1.11

a: 점수는 형용사의 왼편끝~오른편 끝까지의 응답을 1점~7점까지 주었음.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의 요인분석 결과

연구문제 1·2의 규명에 앞서 의미미분척도를 적은 수의 변수로 묶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요인분석을 전체 표집대상 및 연령집단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적었으므로 전체표집 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만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한 결과: 디자인의 전통성과 장식성에 따른 자극물 6개에 대한 응답을 합해서 요인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고유근(eigen value) 1이상인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가·품위요인(요인 I)으로서 평가와 품위에 관계된 8개 단어쌍이 함께 묶였다. 다음은 현대성 요인(요인 II)으로서 전통성·현대성과 관계된 두 단어쌍과 개성, 대담함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실용성요인(요인 III)은 3개 단어쌍으로 묶인 설명력이 낮은 요인이었다.

연구문제 2를 위한 결과: 한복에서의 배색에 따른 자극물 6개에 대한 응답을 합해서 요인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중요한 요인은 평가·품위요인(요인 I)으로서 연구문제 1의 분석에서와 같은 형용사쌍이 포함되었다. 두번째는 사치성·개성요인(요인 II)으로서 4단어쌍이 묶였으며 현대성 요인(요인 III)은 설명력이 낮은 2단어쌍의 요인이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요인 II, 요인 III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관찰자들이 인상형성시 사용하는 내현성격 이론체계가 자극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관찰자들이 의복착용자를 지각할때 한복색상에 대해서는 화사함, 사치스러움의 느낌이 외모의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관계되나, 흑백선 그림으로 제시한 한복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에서는 화려함, 사치스러움이 의복의 기능면과 관계되어 실용성 문항과 함께 묶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디자인에서의 현대성요인은 한복의 선을 응용한 스타일의 개발과 착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그러한 스타일이 한복보다 현대적이고 개성적이

<표 4> 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및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요인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s	요 인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현대성	요인 III: 실용성
A(전통성)		5.313*	85.771***	28.254***
B(장식성)		.663	36.967***	19.115***
C(연령)		1.365	3.064	.015
A×B		.018	19.150***	19.110***
A×C		.934	1.393	3.608
B×C		.294	.590	.330
A×B×C		4.494*	1.013	.196

*p<.05 ***p<.001

인상 점수 평균값^a

변인	구분	요인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현대성	요인 III: 실용성
전통성	한복		-.14	-.57	-.53
	한복응용스타일		.18	.54	.16
장식성	장식없음(無)		.07	-.39	.10
	장식있음(有)		-.03	.35	-.46
연령	여대생		-.07	-.12	-.20
	중년층		.11	.10	-.18

a: 평균값은 0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음(-)의 값은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며 특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용사 쌍이 함께 묶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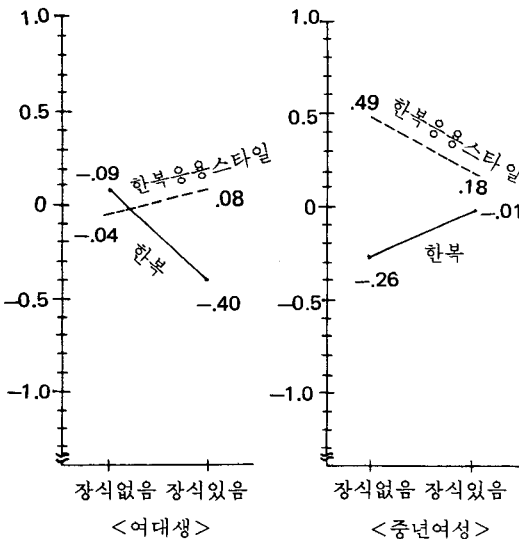
요인 점수의 계산: 연구문제 1·2의 규명을 위한 후속 분석에 사용된 요인점수는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기여도(형용사쌍의 요인부하치의 높·낮이)에 따른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요인 점수에 따른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다음과 같이 그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의미한다. 1) 평가·품위요인에서는 더욱 멋있고 세련되고 지성적이며 품위있고 신중한 사람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1의 현대성 요인에서는 현대적·진보적이며 개성적,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하며, 실용성 요인에서는 실용적이고 검소·수수한 사람으로 지각한다. 3) 연구문제 2에 있어 사치성·개성요인에서는 개성적이고 대담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하며, 현대성 요인에서는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1의 규명

1) 한복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및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변량분석 결과

인상요인에 대한 세변인(디자인의 전통성, 장식성, 관찰자의 연령)의 영향규명을 위해 장식성 有·無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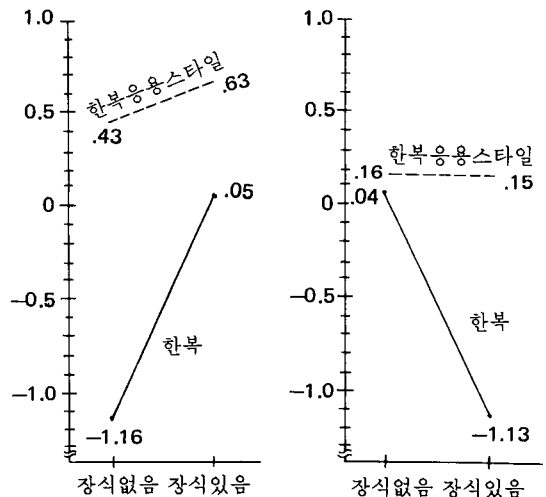
[그림 2] 평가·품위 요인에 대한 디자인의 전통성·장식성 및 관찰자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

른 두가지 한복(H-1, H-2)과 두가지 응용스타일(EU-1, EU-2) 총 4개 자극물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3원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효과: 디자인의 전통성은 3개 요인 모두에서, 디자인의 장식성은 현대성요인 및 실용성의 두 요인에서 주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응용스타일이 한복에 비해 장식 유·무에는 관계없이 보기 좋고 품위 있으며, 현대적, 실용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장식적인 디자인이 한복 또는 응용스타일에 관계없이 현대적이고 비실용적인 것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 평가·품위요인에서 세변인(전통성, 장식성, 관찰자 연령)간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또한 현대성 요인과 실용성 요인에서도 전통성과 장식성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그림 2]와 같이 평가·품위 요인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대생은 한복에 대해서 장식있는 경우에 낮은 평가·품위의 인상을 받았고, 한편 응용스타일에 대해서는 장식있는 경우에 높은 평가·품위의 인상을 받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년 여성은 오히려 장식없는 응용스타일과 장식있는 한복에 대해 좀더 좋은 인상을 형성하였다.

[그림 3]의 현대성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서 한



[그림 3] 현대성 요인에 대한 디자인의 전통성과 장식성간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4] 실용성 요인에 대한 디자인의 전통성과 장식성간의 상호작용효과

복은 장식이 있는 경우에 현대성 요인의 점수가 크게 높아지나, 한편 응용스타일은 장식성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용성 요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와 같이 한복은 장식있는 경우에 실용성 요인의 인상점수가 크게 저하되었으나 응용스타일은 장식성에 따른 차이없이 실용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상에서 현대성 요인과 실용성 요인에 대한 장식성의 영향이 적은 것은 응용스타일의 개발이 현대성과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스타일의 착용이 한복의 실용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응용스타일 자체의 영향이 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근래의 전통한복 착용의 증가와 더불어 장식적인 한복착용은 보다 의례적이고 특수한 행사에서 특히 두드러짐으로써 비실용적이라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2) 한복 디자인의 6개 자극물에 따른 인상의 차이

디자인의 전통성과 장식성 변인조합에 따른 4가지 자극물과 한복응용도의 차이를 둔 응용스타일 2가지를 포함한 자극물 I 의 총 6개 디자인의 의복착용자간의 인상차이를 연령집단별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 평가·품위요인에 대한 6개 자극물간에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2) 현대성요인에서는 두연령집단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여대생들은 H-1(장식없는 전통한복)을 가장 전통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그 다음이 EU-4(영장에 가까운 응용스타일)를 전통적인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나머지 세가지 응용스타일은 좀더 현대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중년여성은 H-1과 EU-4에 비해서 3가지 응용스타일과 장식적인 한복을 더욱 현대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3) 실용성 요인에 있어서는 두연령층 모두 장식있는 한복을 장식 없는 한복 및 4가지 응용스타일에 비해서 비실용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세변인의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때,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디자인의 전통성이며, 디자인의 장식성은 한복의 경우에 한해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관찰자의 영향은 별로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 2의 규명

1) 한복의 색조화 방법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의 변량분석 결과

한복의 색조화 방법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대적 배색의 4가지 자극물 즉, 한복의 저고리색 또는 치마색을 통제된 경우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5> 한복 디자인의 전통성 및 장식성에 따른 6개 자극물에 대한 연령집단별 인상의 일원변량분석 및 SNK 검정 결과

인상요인	연령	자극물번호	H-1	H-2	EU-1	EU-2	EU-3	EU-4	F비
현대성	여대생	평균	-1.422	-.012	.417	.587	.591	-.238	21.943***
		집단구분 ^a	C	AB	A	A	A	B	
	중년여성	평균	-.878	.119	.450	.673	.332	-.605	14.515***
		집단구분	B	A	A	A	A	B	
실용성	여대생	평균	.234	-1.070	.046	.029	.446	.363	10.317***
		집단구분	A	B	A	A	A	A	
	중년여성	평균	-.174	1.204	.269	.288	.530	.310	10.301***
		집단구분	A	B	A	A	A	A	

a: 유의한 차이가 난 집단들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의 크기는 A,B,C 순이다.

***p<.001

SNK 검정에서 α=.05

H-1: 장식없는 전통한복

EU-2: 장식있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H-2: 장식있는 전통한복

EU-3: 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응용된 스타일

EU-1: 장식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EU-4: 양장에 가까운 한복응용스타일

<표 6> 치마색 통제에 의한 한복 배색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s	요인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사치성·개성	요인 III: 현대성
A (한복배색)		.387	1.501	1.144
B (연령)		.023	2.962	22.457***
A×B		.651	1.940	.167

***p<.001

인상 점수 평균값^a

변인	구분	요인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사치성·개성	요인 III: 현대성
한복배색	저고리/치마				
	유사색 조화: (분홍/보라)		.22	-.10	.28
	보색 조화: (노랑/보라)		.10	.10	.03
연령	여대생		.17	-.14	-.33
	중년 여성		.15	.15	.65

a: 평균값은 0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음(-)의 값은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표 7> 저고리색 통제에 의한 색배합과 관찰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의 변량분석 결과

sources	요인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사치성·개성	요인 III: 현대성
A (한복배색)		.070	2.003	8.341**
B (연령)		5.810*	3.677	25.452***
A×B		.597	.060	.378

*p<.05 **p<.01 ***p<.001

인상 점수 평균값^a

변인	구분	요인	요인 I: 평가·품위	요인 II: 사치성·개성	요인 III: 현대성
한복배색	저고리/치마				
	유사색 조화: (연두/청록)		.03	-.15	-.32
	보색 조화: (연두/꽃분홍)		-.02	.18	.17
연령	여대생		-.22	-.19	-.47
	중년 여성		.27	.25	.39

a: 평균값은 0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음(-)의 값은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이 결과에서 배색에 따른 주효과는 저고리색 통제시의 현대성요인 뿐이었으며,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3개로서 치마색 통제시의 현대성요인, 저고리색 통제시의 평가·품위요인 및 현대성 요인에서 나타났다.

즉, 1) 배색에 따라 연두/꽃분홍(보색조화)이 연두/청

록(유사색조화)보다 더 현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2) 연령집단에 따라 중년여성은 여대생에 비해서 분홍/보라 및 노랑/보라의 한복에 대해 더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3) 또한 중년층은 연두/청록, 연두/꽃분홍의 배색에 대해 좀더 보기좋고 품위있으며 현대적이라

〈표 8〉 한복 배색의 6개 자극물에 대한 인상의 연령집단별 일원변량분석 및 SNK 검정 결과^a

요인	연령	한복 배색 자극물		전통적 배색		현대적 배색			F비	
		평균	집단구분 ^b	폐백시 시어머니 ^c	폐백시 신부 ^d	분홍/보라	노랑/보라	연두/청록		연두/꽃분홍
평가 품위	여대생	평균		.153	-.932	.154	.188	-.265	-.173	4.527***
		집단구분 ^b	A	B	A	A	A	A		
현대성	중년여성	평균		.022	.284	.800	.495	.078	.678	2.831*
		집단구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은 없음							

- a: 평균값은 0점을 중심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음(-)의 값은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함. *p<.05 ***p<.001
- b: 유의한 차이가 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으며, 점수의 크기는 A,B 순이다. SNK 검정에서 $\alpha = .05$
- c: 옥색저고리/남색치마, 남팔동, 자주색 고름
- d: 연두색 저고리/다홍색 치마, 다홍색 반희장

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2) 한복 배색의 6개 자극물에 따른 인상의 차이

색조화 방법에 따라 조작된 현대적 색배합의 4가지 자극물과 전통적 배색 2가지 총 6가지의 자극물 II간의 인상 차이를 연령집단별로 일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여대생은 평가·품위요인에 있어서 폐백시 신부복장인 연두저고리/다홍치마는 다른 5가지 배색에 비해서 더 품위 없고 보기 싫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중년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구분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홍/보라색 조화는 가장 현대적으로, 폐백시 시어머니 복장은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지각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한복 각 배색에 대한 인상의 연령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자극물 6개 각각에 대한 연령집단간의 인상차이를 인상요인별로 검증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것은 〈표 9〉와 같으며, 모든 결과에서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평가·품위요인에 있어서 폐백시 신부복장과 연두/청록색 배색에 대해 중년층이 여대생보다 더 보기 좋고 품위있다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2) 사치성·개성요인에 있어서도 노랑/보라에 대해 중년여성이 좀더 개성적이고 화사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3) 현대성 요인에 있어서도 폐백시 시어머니 복장과 4가지 현대적 배색에 대

해, 중년여성이 여대생 보다 더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형성하였다.

4) 의미미분척도의 각 형용사쌍의 평균치에 대한 자극물간 차이비교

한복 배색에 따른 자극물간의 인상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연령집단별로 의미미분척도의 각 형용사쌍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14개 형용사쌍 중 자극물간의 차이를 보인 것은 '신중한-경박한'이 여대생집단에서(F=3.22*), '화사한-어두운'이 두 연령집단 모두(여대생: F=13.29***, 중년여성: F=19.65***)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대생은 연두/꽃분홍 배색을 나머지 3개 배색에 비해서 덜 신중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 연령층 모두 연두/청록 배색을 더 어두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의 12개 형용사 쌍에서는 자극물간 차이가 없었으며 전반적인 응답경향은 배색에 관계없이 1) 평가·품위 요인의 형용사쌍에서는 보기 좋은, 자연스러운, 품위 있는, 조화된, 그러나 약간 지성적인, 약간 세련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2) 사치성·개성요인에서는 약간 감소하며, 그러나 '평범한-개성적인', '소심한-대담한'에 대해서는 중간점수 부근의 응답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문제 2의 규명을 위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배색을 달리하는 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관찰자의 연령이 영향을 미치며 한복배색은 두드러진 영

향을 보이지 않았다. 즉, 현대적 배색의 색조화 방법은 저고리색 통제시의 현대성 요인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나타냈을 뿐이며, 전통적 배색은 여대생집단에서만 평가·품위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한복배색에 따른 인상차이가 적었던 결과는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 본 연구에서 현대적 배색을 색채조화이론에 따라 온화한 느낌의 유사색 조화와 강렬한 느낌의 보색조화로 분류·선택하였으나, 이는 근래에 입혀지는 색상 중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배합하였고, 특이하거나 이상한 색상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미분척도의 각 형용사쌍에 대한 응답경향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 한편으로는 관찰자들이 한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한복에 대한 고정관념 즉 고전적이고 우아하고 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작용하여 특정색상조화에서 오는 느낌의 대부분이 상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저고리색 통제시에는 색조화 방법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 연두/꽃분홍은 연두/청록보다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으며, 이는 선명하고 가시성 높은 꽃분홍색이 더욱

이 넓은 면적(치마)을 차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치마색 통제시에는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노란색이 좁은 면적(저고리)에 사용됨으로서 노란색의 효과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한편으로는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미미분척도가 색상에 따른 차이를 판별할 수 있는 형용사쌍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판별력 높은 형용사쌍이 포함된 평가척도를 사용한다면 본 연구와는 다른 한복배색에 대한 인상 형성결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생각된다.

한복색배합 6개 모두에 대한 인상에서 연령집단의 차이를 나타내어 중년여성이 여대생에 비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이는 중년여성은 여대생보다 오랜기간 한복을 접해왔으므로 본 연구의 한복배색을 과거의 한복색과 비교하면서 반응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여대생의 폐백시 신부복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품위요인의 인상은 한복배색이 갖는 전통적 의미를 모르면서 다홍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져온 결과로 생각된다.

<표 9> 한복의 각 자극물의 인상요인점수에 대한 연령집단간 차이검증 결과^a

요 인	자 극 물	집단구분 ^b	평 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값
평가·품위	폐백시 신부	여 대 생	-.932	.949	.194	-2.36*
		중년여성	-.210	1.140	.238	
	.연두/청록	여 대 생	-.264	1.034	.216	-2.48**
		중년여성	.378	.641	.143	
사치성·개성	노랑/보라	여 대 생	-.158	.899	.187	-2.18*
		중년여성	.381	.714	.162	
현 대 성	폐백시 시어머니	여 대 생	-.656	.735	.153	-2.36*
		중년여성	.022	1.033	.243	
	분홍/보라	여 대 생	-.257	1.365	.298	-3.08**
		중년여성	.800	.792	.169	
	노랑/보라	여 대 생	-.392	.772	.161	-3.79***
중년여성		.495	.779	.170		
연두/청록	여 대 생	-.670	.704	.147	-3.50***	
	중년여성	.078	.694	.155		
연두/꽃분홍	여 대 생	-.278	.868	.177	-3.67***	
	중년여성	.678	.878	.192		

a: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p<.05 **p<.01 ***p<.001

b: 각 집단별 피험자의 수는 24명임

4. 연구문제 3의 규명

1) 자극물 I·II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추측: 연령, 신분 및 착용목적

디자인 및 한복 배색의 자극물속의 의복 착용자를 보고 그 연령, 신분, 착용 목적을 추측한 응답은 <표 10>과 같다.

(1) 연구문제 1: 한복디자인의 전통성 및 장식성

자극물 H-1(장식없는 전통한복): 착용자의 연령은 30대부터 50대까지이며, 신분은 가정주부, 착용목적은 결혼식에 가는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회 또는 절, 일상적 외출 및 명절로 나타났다.

자극물 H-2(장식있는 전통한복): 연령은 30대, 신분은 대다수가 주부이며 다음이 직장여성으로 나타났다, 착용목적은 파티가 대다수이며 다음이 명절과 결혼식이었다.

자극물 EU-1(장식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30대 연령의 직장여성 또는 가정주부이며, 착용목적은 일상적 외출 및 파티에 가는 것이었다.

자극물 EU-2(장식있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30대 연령의 직장여성 또는 가정주부이며, 착용목적은 일상적 외출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친구모임, 파티의 순이었다.

자극물 EU-3(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온 된 스타일): 연령은 30대, 신분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고, 다음이 직장여성이며, 착용목적은 일상적 외출이 두드러졌다.

자극물 EU-4(양장에 가까운 한복응용 스타일): 자켓을 걸친 응용스타일에 대해서는 40대·50대의 가정주부이며, 착용목적은 가장 높은 것이 일상적 외출, 다음이 친구모임이었다.

자극물 6개를 전반적으로 비교해볼 때 H-1(전통한복)만이 좀더 다르게 지각되었다. H-2, EU-1, EU-2, EU-3은 모두 30대, 신분은 가정주부 또는 직장여성이었다. 착용목적은 EU-2, EU-3, EU-4는 일상적 외출이 가장 높았고, 그외에 친구모임도 높았다. H-1은 연령층이 광범위한 가정주부이며, 착용목적은 결혼식이 가장 높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목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10> 한복 디자인의 6개 자극물에 대한 관찰자의 연령, 신분 및 착용목적의 인상추측^a

문항	자극물 번호	H-1	H-2	EU-1	EU-2	EU-3	EU-4
연령	20대	2명	11명	4명	8명	7명	1명
	30대	13	23	30	26	23	8
	40대	15	8	11	9	11	20
	50대	15	4	1	4	6	17
	60세 이상	3	1	2	1	1	2
신분	학생	2	2	1	1	12	5
	직장여성	1	15	21	22	19	4
	가정주부	43	27	22	21	24	38
	신분에 관계없음	2	3	4	4	3	2
착용 목적	결혼식	14	11	1	1	3	3
	파티	5	24	15	9	7	4
	특별한 외출	8	—	17	18	26	23
	친구 모임	1	1	6	12	5	12
	교회 또는 절	9	—	3	2	2	2
	자모회	3	1	1	5	1	4
	명절	7	10	2	1	2	—

a: 각 자극물당 관찰자 수는 48명이나 무응답자도 있음.

H-1: 장식없는 전통한복

H-2: 장식있는 전통한복

EU-1: 장식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EU-2: 장식있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EU-3: 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응용된 스타일

EU-4: 양장에 가까운 한복스타일

<표 11> 한복 배색의 6개 자극물(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연령, 신분 및 착용목적의 인상추측*

문항	자극물 내용 구분	전통적		현대적			
		페백시 시어머니	페백시 신부	분홍/보라	노랑/보라	연두/청록	연두/꽃분홍
연령	20대	1명	11명	1명	1명	1명	11명
	30대	7	24	13	7	9	29
	40대	17	13	24	27	29	6
	50대	21	—	10	12	10	12
	60세 이상	3	—	—	1	—	—
신분	학생	—	1	1	—	—	—
	직장여성	1	4	3	3	5	5
	가정주부	44	34	41	44	42	40
	신분에 관계없음	3	9	3	1	2	3
착용목적	결혼식	11	14	21	15	12	17
	파티	—	1	5	6	3	6
	특별한 외출	11	7	9	9	8	10
	친구 모임	1	1	1	1	—	1
	교회 또는 절	4	1	4	2	8	—
	자모회	3	2	4	3	6	1
	명절	18	21	3	12	8	13

a: 각 자극물당 관찰자 수는 48명이나 무응답자도 있었음.

(2) 연구문제 2: 한복의 배색

연령: 한복의 배색에 따른 자극물에 대한 분포경향을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 페백시 시어머니 복장은 50대·40대, 신부 복장은 30대를 중심으로 40대와 20대로 나타났다. 현대적 배색에서 연두/꽃분홍은 3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이며, 분홍/보라, 노랑/보라, 연두/청록은 4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50대, 30대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신분 및 착용목적: 모든 자극물에서 의복착용자를 절대다수가 가정주부로 지각하였으며, 착용목적에서 전통적 배색 2개 모두 가장 높은 것은 명절, 다음이 결혼식, 특별한 외출이었다. 현대적 배색 4개 모두에서 결혼식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분홍/보라는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노랑/보라와 연두/꽃분홍은 명절이 두번째로 나타났다. 연두/청록만은 결혼식 외에도 특별한 외출, 교회 또는 절, 명절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디자인 및 한복배색의 자극물안에 나타난 의복착용자의 연령, 신분, 착용목적에 대한 관찰자의 추측을 종합해 보면, 자극물 I과 자극물 II사이에 전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한복디자인의 전통성 및 장식성에서는 자극

물에 따라 좀더 다양한 연령층, 신분 및 착용목적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한복의 배색에서는 자극물에 따른 차이보다는 대체로 유사하게 지각하였으며 특히 신분과 착용목적은 좀더 같은 것으로 추측하였다.

2) 자유응답에서 나타난 자극물내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연상내용

디자인과 색배합에 대한 각 자극물의 의복착용자를 보았을때, 관찰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쓰도록 하였으며, 자극물별로 동일한 내용의 응답이 3번이상 반복된 것만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때, 전통적 측면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서, 현대성 및 활동성 측면은 디자인의 자극물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응용디자인과 한복의 배색이 서로 다른 인상의 차원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답한 내용의 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은 디자인 EU-3이었고 한편 가장 언급이 적은 것은 H-1였다.

디자인: EU-3은 현대적이고, 개성적이며 세련되게 보였고, 또한 편안한, 활동적인, 직장여성다운, 활동성등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으나, 한편 어색하거

<표 12> 자유응답에서 나타난 자극물에 대한 인상 내용^a

단위 : 명

측면	자극물 내용	다 자 인						한 복 배 색					
		H-1	H-2	EU-1	EU-2	EU-3	EU-4	페백시 시어머니	페백시 신부	분홍/ 보라	노랑/ 보라	연두/ 청록	연두/ 꽃분홍
전 통 성	우아함										3명	3명	
	품위있음							5				4	
	조용함									3			
	한국여인다움							5		5	4		
	전통적임							4	4				
현 대 성	현대적임				3	5							
	개성적임				3	3	3						
	세련됨			3		3							
	화려함		6										
활 동 성	편안함					4	4						
	활동적임			3	3	3							
	직장여성다움			3		3							
기 타	여성스러움										3		
	새뉘다움								3				6
	성품이 좋음, 명랑함												3
	평범함											3	
	검소함	3											
	어색함, 촌스러움		3		5	4			3				

a: 각 자극물에 대하여 3명 이상 언급한 것만 제시하였음.

H-1: 장식없는 전통한복

EU-2: 장식있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H-2: 장식있는 전통한복

EU-3: 양장과 한복이 같은 정도로 응용된 스타일

EU-1: 장식없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EU-4: 양장에 가까운 한복응용스타일

나 촌스럽다고도 보았다. EU-2도 현대적이고 개성적이며 활동적인 반면, 어색하거나 촌스럽다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EU-4는 개성적이고 편안한 인상만을 받았다.

한복배색: 전통적 한복배색에서 페백시 시어머니 복장은 품위있고, 한국여인다움, 전통적인 것으로, 한편 신부복장은 전통적이고 새뉘다움 인상을 받았으나 촌스럽게도 보았다. 현대적 배색(4가지)중 분홍/보라, 노랑/보라, 연두/청록은 전통성 측면의 인상을 받았으며 이와는 달리 연두/꽃분홍만은 평범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 3의 규명에서 나타난 결과, 즉 자극물 I·II를 보고 의복 착용자의 연령, 신분, 착용목적에 대한 관찰자의 추측 및 연상내용은 전반적으로 앞에서 나타난 의미분척도의 분석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다형 문항과 자유응답 문항의 사용은 형용사쌍의 객관적인 척도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인상의 추상적인 측면을 좀더 구체적인 사실, 즉 연령, 신분,

착용목적등과 연관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표집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점과 둘째, 측정도구의 문제이다. 즉, 의미분척도의 형용사쌍의 선정에 있어서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판별력이 높은 형용사쌍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자극물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한복 배색 및 한복응용스타일 디자인으로부터 대표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의 전통성 및 장식성(연구문제 1)과 한복에서의 배색(연구문제 2)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3개 인상이요인이 도출되었다. 가장 중요한 제 1요인은 공통적으로 평가·품위요인이었으며, 제 2요인은 디자인에서는 현대성, 한복배색에서는 사치성·개성이었으며, 설명력이 낮은 제 3요인은 디자인에서는 실용성, 한복배색에서는 현대성이었다.

둘째, 연구문제 1의 디자인의 전통성 및 장식성에 대한 인상형성 분석에서는 1) 전통성의 유무(한복 또는 한복응용 스타일)가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디자인의 전통성은 모든 인상이요인에 영향을 미쳐 한복응용 스타일이 한복보다 더 보기 좋고, 품위가 있으며,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지각되었다. 2) 디자인의 장식성은 전통한복인 경우에만 2개요인(현대성, 실용성)에 영향을 미쳐 장식적인 한복이 보다 현대적이고 비실용적으로 지각되었다. 3) 연령에 의한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째, 한복의 현대적 배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1) 저고리색 통제시에 한하여 현대성 요인에만 영향을 미쳐, 저고리색을 연두색으로 고정시켰을때 보색조화(연두/꽃분홍)가 유사색 조화(연두/초록)보다 더 현대적으로 지각되었을 뿐이다.

2) 한복의 현대적 배색에서의 연령의 영향은 3가지로 나타났다. 즉, 평가·품위 요인 및 현대성 요인에서, 연두색 저고리와 두가지색의 치마가 배색된 한복을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더 품위있고 현대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치마색 통제시의 배색에서는 현대성 요인에서 분홍/보라, 노랑/보라의 한복에 대해 중년여성이 여대생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았다.

네째, 의복착용자의 연령, 신분, 착용목적에 대한 관찰자의 추측 및 연상은 디자인(자극물 I)과 한복배색(자극물 II)간에 유사점보다는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1) 착용자에 대한 연령층의 추측에 있어서 디자인의 자극물은 주로 30대가 많았으나, 한복배색의 경우 좀더 연령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착용자의 신분에서 색배합은 주로 가정주부였으나 응용스타일은 직장여성도 반정도를 차지하였다. 3) 착용목적이 높게 나타난 순위는 한복배색의 경우, 주로 결혼식, 명절, 특별한 의출이며, 디자인의 응용스타일은 일상적 의출, 파티, 친구모임으로 추측되었다. 4) 착용자에 대한 연상내용에서 전통적 측면의 내용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서만 나타났

고 현대성 및 활동성측면은 디자인의 자극물에서만 나타나, 한복응용 스타일과 한복배색은 서로 다른 인상차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반적으로 앞의 객관적인 의미미분척도의 분석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Minja Klim, Traditional identity and its aesthetic value in Korean fashion desig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f Cultural Aspects of Home Economics in Asian Countries, 193-208, (1990).
- 2) 강혜원, 이주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의복의 의미 (I) - 한복을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14(1), 31-43, (1990).
- 3) Schneider, D.J., et al., *Person perception* (2nd ed.), Addison-Wesley Pub. Co., (1979).
- 4) Asch, W.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 of Abn. Soc. Psy.*, 41, 258-290, (1946).
- 5) Sears, D. et al.,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1985).
- 6) 조궁호,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197-223, (1986).
- 7) Schneider, D.J.,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94-309, (1973).
- 8)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Y.: MacMillan Pub. Co., (1985).
- 9) Sweat, S.J., Zentner, A.N.,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 (1985).
- 10)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5(1), 10-16, (1986).
- 11)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0).
- 12) Damhorst, M.L.,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2), 39-48, (1985).
- 13) 박기완 역, Noriyuki, Chimura 原著, 복장의 색채, 서울, 유신문화사, (1977).
- 14)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15) Mahannah, L.,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1968), in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16) Yener, B.A., The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attrac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Purdu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82).
- 17) Francis, S.K., Evans, P.,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model on pers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 383-390, (1987).
- 18) 금기숙, 한국 복식미의 탐구, *복식*, **14**, 167-184, (1990).